

<허삼관매혈기>

And

<허삼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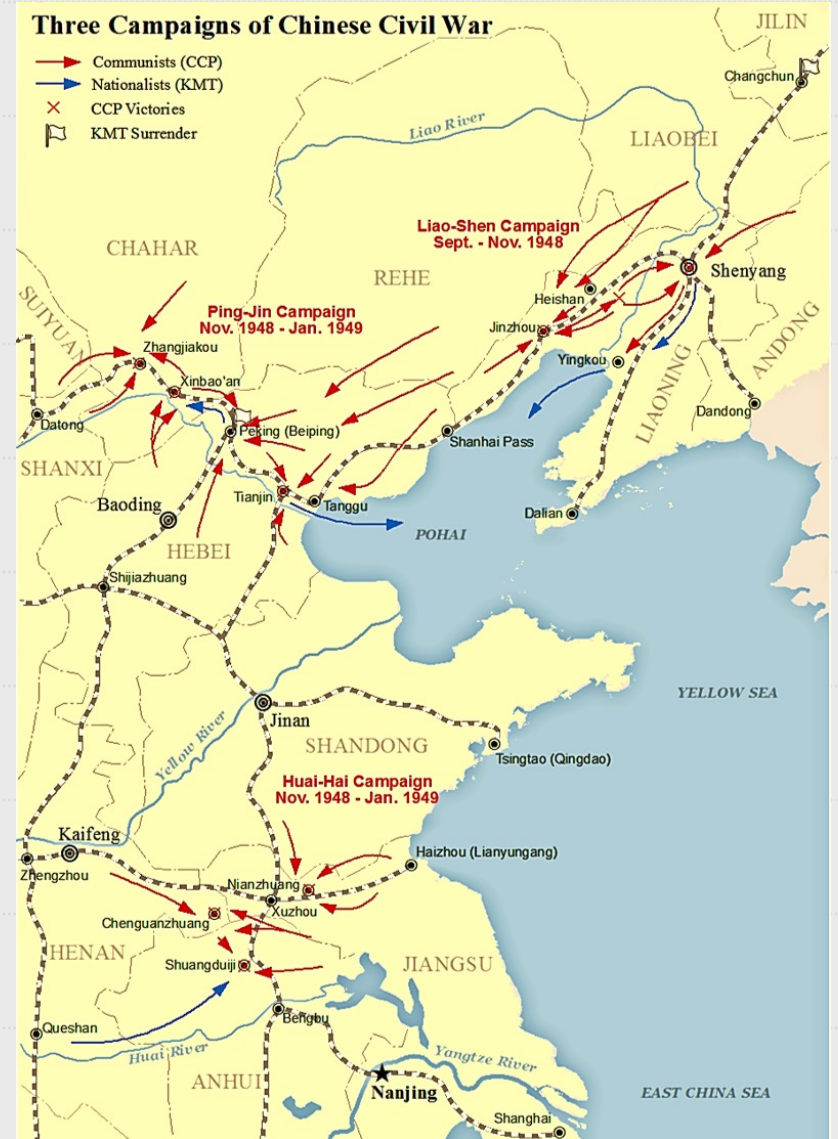


목차

- 짧게 보는 중국역사
 - 작가 소개
- <허삼관> 소설의 메시지
- <허삼관 매혈기>의 메시지

짧게 보는 중국 초창기의 역사

1 - 2차국공내전 (1945~1949)





2. 대약진운동 (1958~1962)

-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집단 농장 만들고 생산량 늘릴 것을 명령.
- 토법고로(오른쪽 사진)는 홈메이드 용광로이다. 철광석이 없어서 냄비, 후라이팬, 자전거 등을 용광로에 넣었지만, 철의 순수성이 높지 않아서 쓸모가 없었다.

3. 문화혁명은?

無産階級文化大革命 / 无产阶级文化大革命(무산계급문화대혁명)
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

- 1966~1976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반달리즘/학살사건
- 마오쩌둥(毛泽东, 1893~1976)은 당시 중국인들의 광범위한 존경, 지지를 받고 있었다. 다만 대약진 운동의 실패 + 마오쩌둥의 노화로 힘이 떨어지자, 반대세력을 막기 위해 문화혁명을 일으켰다.



문화혁명의 이념

- 중국식 공산주의(집산화)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던 시절, 모택동은 자본주의가 부활하고 자신이 격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.
- 그래서 그는 모든 과거의 문화, 서구적 문화를 일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을 제안했다.
- "옛 것은 모조리 숙청하자. 문화, 교육, 정치, 가족 등 모든 것을."



문화혁명의 결과

- 홍위병들이 모든 반혁명적인 것, 서구적인 것을 없애려고 했다.

- 예시

교사 등 지식인 -> 지식인 고발

유교 등 문화가 묻어나는 전통 시설 -> 구시대의 문화라고 파괴

자산가 -> 자본주의적이라는 이유로 숙청

당과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만 해도 고발당하고, 공개처형
("자본주의의 개" 같은 말이 써진 모자를 쓰고 광장 다니게 함.

->

가족 간의 고발, 싫어하는 사람 고발,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고발 등등..





문화혁명,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.

- 현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함.
- 중국도 쉬쉬하는 역사에 가까움.(시진핑 가족도 피해 입음)
- 다만 일반적인 독재정권의 학살과는 다른 부분도 큼.
(Nazi와 연결해서 생각해보자.)

▶ '대중혁명'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.



- 반면 대중의 직접적 정치참여가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.

* 패왕별희 *





작가 소개



위화(1960.4.3~)

(余华/余華, yú huá)

-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문화대혁명 때 고생함.
- 위화도 의사가 됐다.
- 23살 때 치과 의사를 버리고 작가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.
- 1980~90년대에 쓴 작품이 해외에도 알려지고, 특히 <인생>이 영화화되어(1994, 장예모 감독) 유명해지기도 했다.



위화(1960.4.3~)

작품특징

- 역사적 비극을 소재로 삼으면서도, 처량하게만 쓰는 것은 아니고 유머를 섞어서 묘사하기도 한다.
- <허삼관 매혈기> 같은 경우에는, 중국의 역사가 배경이기는 하지만 대놓고 쓰진 않고 배경으로만 살짝 나온다.

하정우

(김성수, 1978~)

■ ...





영화 <허삼관>에 대하여.



소설과 영화의 첫 번째 차이.

- 소설의 경우 국공 내전->대약진운동->문화혁명이라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.
- 그런데 영화는 시대가 불명확하다. 시작할 때에는 '1953년 한국'이라고 시대적 배경이 명시되지만, 영화를 보다 보면 한국인지 불명확하다.(음식, 집 등도 왠지 중국 분위기가 난다.) 한편 이 영화는 한국의 사회적 상황(가령 4.19/군부정권 등등)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.



허삼관의 특징1(프로포즈때)

- 피를 팔아서 허옥란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.
- " 나한테 언제 시집올거요?(...) 나한테 시집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소? 나한테 시집오면 내가 얼마나 아껴주고, 보호해주고, 또 맛있는 음식도 사줄 텐데..."
- 허옥란 아버지에게 가서는
- "허옥란이 하소용과 결혼하면 허씨가 끊깁니다. 허씨가문의 피를 이으려면 옥란 씨를 제게 주십쇼. 저를 데릴 사위로 생각하세요."

허삼관 특징2

- 허옥란과의 관계

- 결혼한 이후 허삼관은 허옥란과 함께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.
- 그런데 허옥란이 하소용과 관계를 맺고 일락이 하소용의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자 정색한다.
- 이후 허삼관 본인도 바람을 핀다.(영화에서는 일락이 허삼관을 변호해준다.)





허삼관의 특징3 -일락과의 관계

- 본래는 좋아하는 아들이었지만, 하소용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이후로는 애증의 관계가 된다.
- 이후 결국 일락에게 가족애를 느끼고...



영화 기준 관객에게 주는 느낌은?

- 낯은 정보다 키운 정.
- 가족의 소중함.
- 가난한 시절, 순박한 남자가 자신의 가족을 힘겹게 지키는 이야기...



이 영화, 문제는 없나?



<허삼관> 소설과 중국의 상황

- 중국사회 :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고자 했다.

“아버지를 부정하라”

-> 문화혁명 중 허옥란이 비판받는 장면으로 드러남.

- 허삼관 : 가족을 중요시 함.



허삼관의 평등주의와 독심

- 허삼관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.
-> 결혼할 때, 허옥란의 강간을 알았을 때, 일락의 아버지를 알았을 때...
- 피를 팔고 바람을 퍼서라도 정확한 Give and Take를 하려고 한다.
- 그 Give and Take 가 너무 자기 기준이라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..

A traditional Korean painting, likely a reproduction of a historical work, depicting a street scene at night. The scene is illuminated by several glowing lanterns, including a large one in the foreground and smaller ones hanging from buildings. The architecture features traditional Korean tiled roofs (gwancheong) and wooden structures. In the background, a tall, white, multi-tiered structure, possibly a pagoda or a temple tower, is visible against a dark, starry sky. The overall atmosphere is serene and historical. The text is overlaid on the left side of the painting.

소설의 후반부가 되면서
허삼관 가족은 너그러워 진다.



피를 판다는 것

-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.
- 그런 사회 속에서 우애를 지키며 살아가는 민중들의 생명력.
- 피를 팔면서까지 '생명'을 지킨다는 역설.

소설의 마지막 부분

새로운 혈두(피를 팔 수 있는지 결정하는 사람)가 허삼관에게 “당신의 피는 돼지 피처럼 더러워서 못뽑는다”고 하자, 허옥란은 마구 욕을 퍼부었다.

“그 자식 피가 돼지 피지.(...) 그 자식 아버지는 진짜 밥통이라구요. 일원짜리하고 오원짜리도 구분 못하는 천치라니까요. 개네 엄마도 내가 잘 알지. 알아주는 화냥년이라구요. 그래서 그 자식은 누구 씨앗인지 아무도 모른다니(...)”

이 말을 들은 허삼관이 허옥란에게 근엄하게 한마디 했다.

“그런 걸 두고 X 털이 눈썹보다 나기는 늦게 나도 자라기는 길게 자란다고 하는 거라고.



정리

- <허삼관 매혈기> : 중국 사회의 빈곤과 고유한 성질에 대한 성찰,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야기함.
- <허삼관> : ?